



지면안내

1~3

원도심 핫이슈
... 제주 원도심 을래를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의 가능성

4~8

원도심 TALK
... 원도심에 세워진 최초의 건물들
... 주민인터뷰1
'무근성의 역사적 가치를 지켜야'
... 주민인터뷰2
'놀 공간이 부족해서 심심해요'
... 무근성 In SNS

9

원도심 동네마실
... 병방안 일상이 담긴 문화놀이터

10~11

원도심 RE-FRESH
... 유령문화재 형사당의 변신은 '무죄'

12~13

원도심 관찰일기
... 관덕정에서 바라 본 우리 일상의 기록

14~16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무근성”은 과거 제주읍성의 북서측 성곽과 병문천 사이에 형성된 마을로 오래된 성이라는 의미인 진성(陳城)에서 유래했다. 제주의 행정 및 주거 중심 지역으로 민가가 밀집해 형성되어 있고 옛길과 을래도 잘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제주의 원도심은 마을과 집을 연결해 주는 전위적 공간으로 “을래”로 대표되는 제주만의 독특한 도시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다. 을래는 한길(큰길)에서 개인주거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골목길을 의미한다. 대부분은 여러 세대가 공유하며 2m 전후의 좁은 폭과 올랫담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감을 지니고 있다. 을래는 오래된 제주 방언으로 “거리에서 대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동네의 몇 집이 한 골목이나 한 이웃으로 되어 사는 구역 안”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형성된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하겠다.

원도심 속 을래

필자는 지역의 연구자들과 함께 다년간 제주시 원도심 조사를 통해 도시공간구조의 실태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본 고에서는 그 결과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길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땅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선형(線形) 공간으로 을래의 구성요소 역시 “길(path)”과 “결절점(node)”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에 결절점은 통행이 불가능한 막힌 “폐쇄”, 통행이 가능한 열린 결절점 중 다른 4m 미만의 길로 연결되는 결절점을 “연결”, 4m 이상의 길로 연결되는 결절점을 “개방”으로 규정 하여 “단위 을래”를 정의 하고 그 유형을 도출하였다.(그림 1)

이러한 을래의 유형을 바탕으로 그 변화를 193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을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을래의 전형적 특성을 지닌 유형 들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확폭과 도로의 신설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즉, 도시화로 인해 을래가 깨지고 있으며, 전형적 을래가 큰 도로에 직접 접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위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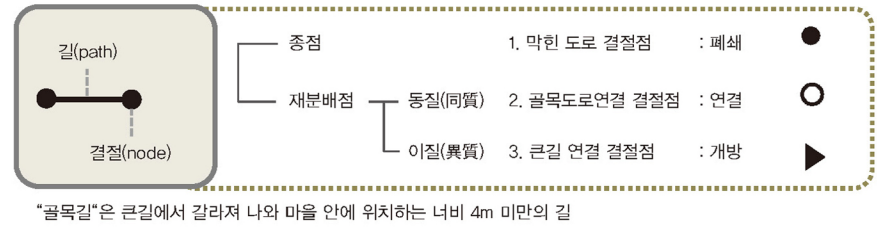


그림 1 을래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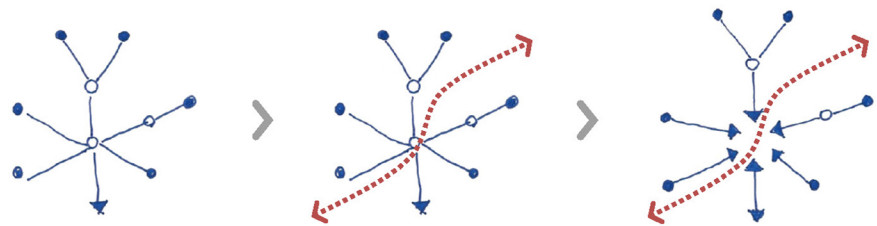


그림 2 을래의 분화와 위계의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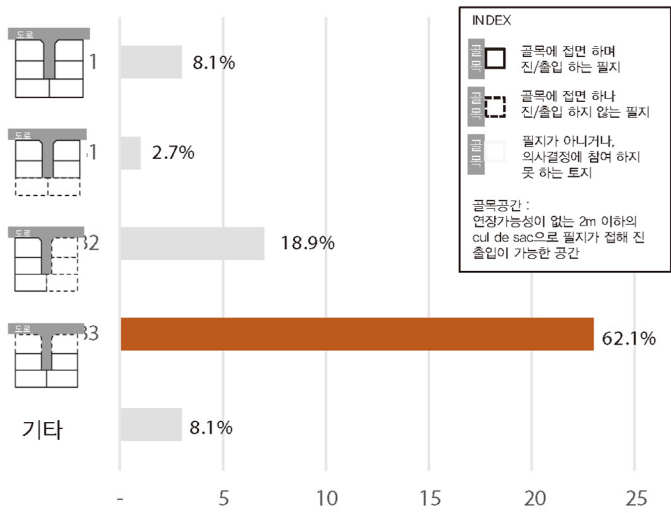


그림 3 을래 속 필지들의 진출입 현황

을래 그리고 커뮤니티

을래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커뮤니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2010년을 기점으로 무근성 지역 을래에 인접한 필지들의 진출입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62.1%)에서 큰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을래속 필지들이 이미 도로에서 바로 진출입 하고 있었으며, 필지모두가 을래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는 원형은 8.1%에 불과했다.(그림 3)

즉, 을래의 물리적 위계변화와 함께 커뮤니티 역시 단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또한 실제 다수의 을래에서 큰길에 면한 올랫담이 철거되거나 을래를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의 혼란이 발생 하고 있었다.



올랫담 철거 모습

향후 건축협정 등의 적용을 통한 마을단위 소규모 정비 시에 주민간 의사결정에서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입체을래를 활용한 도시형집합주택 모델

본 고에서는 을래와 커뮤니티 혼란에 대한 도시공간 질서 회복 방안으로 입체형 을래를 지닌 도시형집합주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절되고 그 위계가 사라져 변질된 을래에 입체 을래를 더함으로써 전통적인 을래의 질서와 위계를 회복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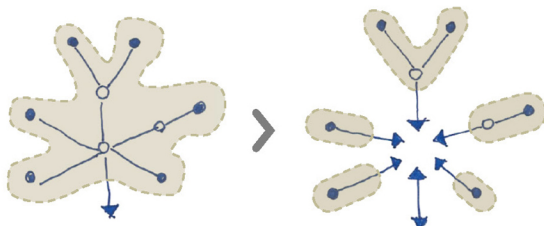


그림 4 을래 속 커뮤니티의 분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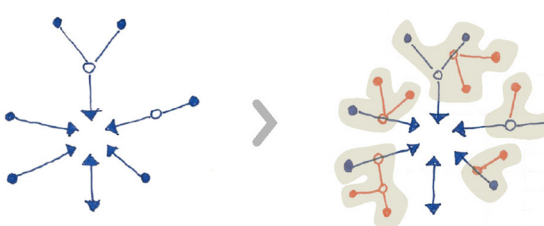


그림 5 입체 을래를 활용한 전통을래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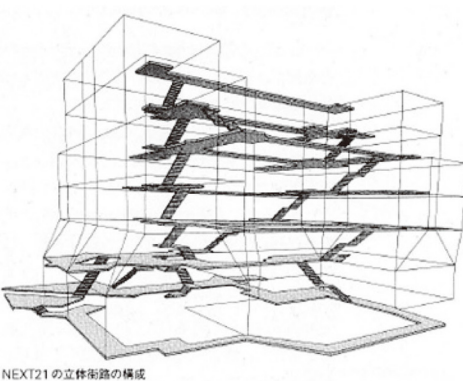


그림 6 입체가로의 적용 예(NEXT21)

것이다. 즉, “집”과 “커뮤니티”의 관계를 “입체 을래”를 통해 재발견하는 정주환경 개선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5, 6) 또한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간 질서의 저해를 막기위해 옛길의 확폭이나 도로 신설을 지양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의 기본 단위로 기억을 공유하는 을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야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을래와 필지의 질서를 유지하고 순차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건축협정(마을단위 소규모 정비)제도가 제주에 적합하도록 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규, “제주시 구도심 골목길 공간구조 특성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계획계 논문집, 2016

이용규 외, “제주시 원도심 골목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2015

양진,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수북형 도시재생 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6

양상호, “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20(6), 2011.

김태일, “제주건축”, 제주대학교 출판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2016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규명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2015

巽和夫, 「町屋型集合住宅」, 学芸出版社, 1999

원도심에 세워진 최초의 건물들

학교 · 병원 · 극장 등 근대문물 펼쳐진 제주시 원도심

‘성안 사람들’이 품고 있는 기억과 흔적 아스라이
건물 껍데기만 남았지만 거쳐간 이들의 영혼 담겨



진선희 한라일보 기자

제주 사람들이라면 제주시 원도심에 얹힌 기억 하나쯤은 품고 있을 것이다. 제주의 오랜 역사, 문화, 행정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한때는 ‘구제주’란 용어로 그곳을 일컬으며 궁색하고 초라한 시설이 살아남은 지역처럼 여겨왔지만, 그게 아니다. “기억이 사라진 도시는 미래도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주시 원도심이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할 때 이 섬의 앞날도 평화롭게 그려진다.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던 제주시 원도심에 ‘최초’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근대 문물이 잇따라 생겨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 중 일부는 썰물과 밀물처럼 세월이 파고를 넘나드는 속에도 지금껏 우리곁에 남아 있다. 빗돌만 덩그러니 놓인 여느 건축물과 달리 시간의 결이 배인 실물로 말이다.

현대사의 한복판에 선 제주북초

먼저, 제주북초등학교가 있다.

“제주도 최초의 공립 신교육기관으로

1907년 5월 19일 개교한 이래 제주도 근·현대사의 영광과 고난을 겪으며 우리나라와 이 고장의 인재들을 가르치고 길러오고 있다.” 학교 입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제주교육의 발상지’ 조형물에 써있는 내용이다.

제주4·3사건의 발발로 이어진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곳이 바로 이 학교다. 제주 현대사의 한복판에 제주북초가 있었다. 제주북초등학교는 제주에서 처음 생겨난 ‘공립보통학교’다. 제주교육사상 최초로 설립·운영된 근대 소학교인 제주목공립소학교(1897년 개교 추정)가 있었지만 1906년 소학교령이 폐지되고 보통학교령이 공포되며 1907년 5월 새롭게 제주공립보통학교가 개설된다.

1910년 1회 졸업생 26명을 배출했고 이 해 처음으로 여학생이 재학했다. 최근까지 2만4000명이 넘는 졸업생이 거쳐간 제주북초는 그동안 도심 공동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해왔다. 1980년 46학급에 전체 학생수 3055명에 달했던 제주북초 학생수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특수학급을 포함 13학급



제주북초등학교

225명으로 크게 줄었다. 1980년 학생수의 10%에도 못미치는 숫자다. 출산율 저하의 영향도 있지만 신제주로 팽창한 도시 개발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

제주도 최초의 신식 사립여학교는 중앙성당 옆에 있었다. 1909년 설립된 신성여학교다. 2010년 천주교제주교



중앙성당

구장인 강우일 주교가 이사장을 맡은 신성학원에서 중앙성당 마당에 설치한 ‘신성 엠티’ 빗돌엔 라크르 신부가 평생 발일과 물질로만 살아야 했던 제주 여성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존귀한 인격과 품위를 깨닫고 스스로를 개발해 세상을 위해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성여학교를 개교했다고 기록해놓았다.

신성여중·고의 모태인 신성여학교는 단순히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부설 학교가 아니라 정식 근대교육 기관이었다.

중앙성당은 제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원교구에 재임하던 외국인 폐네 신부가 제주로 와서 1899년에 매입한 도내 첫 성당이자 사제관이 있던 곳이다. 당시 1550냥을 주고 사들인 커다란 기와집은 9칸은 성당으로, 2칸은 사랑으로 사용됐다.

제주도 개신교의 뿌리도 원도심에 두고 있다. 1908년 이기풍 선교사는 중

인문 안에 있는 초가에 임시 기도처를 두었다가 1910년 제주성내교회 자리에 있던 건물을 구해 교회를 지었다. 제주성내교회 옆에는 제주극장이 운영됐다. 훗날 현대극장으로 이름이 바뀐 제주극장은 영화 상영만이 아니라 제주예술제 등 문화공간으로 쓰였다. 1980년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극장은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철제로 얹힌 입구에 입장표를 팔았던 자그만 구멍이 나있어 극장이 자리잡았던 과거를 말해준다.

사연과 기억 채워넣어야

도심 공동화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옛 제주대병원은 제주자혜의원이 있던 곳이다. 자혜의원은 1910년 개설된 양의 공공 진료기관이다. 1930년 전남

도립 제주의원으로 개칭됐고 도립병원, 제주의료원으로 명칭이 달라졌다. 제주MBC의 출발점인 남양방송은 중앙성당 인근 건물에 본사를 두고 1968년 9월 첫 라디오 전파를 쏘아올렸다. 남양방송은 도내 최초로 민간인이 경영하는 상업방송 주식회사였다. 방송사 건물엔 슈퍼마켓이 들어섰다. ‘최초’란 이름이 붙는 이들 공간에 문화의 향기를 입히자는 이야기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옛 제주대병원, 제주극장, 남양방송 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기됐거나 구체적 실행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2012년말에 판덕정 옆 옛 제주시청사가 허무하게 철거됐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성안 사람들’이 힘겹게 끌어온 흔적을 더 이상 파괴해선 안된다.

껍데기만 남은 건물이라고 부술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연과 기억을 채워넣어야 한다. 늦지 않았다.



구, 제주극장(현대극장)



무근성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복잡한 도시 속에서 제주스러움이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근성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고령이죠, 자녀들은 집단주거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가 살고 결국은 노인들만 남았죠. 어르신들은 신제주 가면 복잡해서 멀미난다고 해요.

무근성의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 무근성에 젊은 시절부터 40여년을 살고 있지만 나는 좀 학술적인 이야기 밖에 못해주는데... 사람 사는 옛날 이야기 듣고 싶으면 무근성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들어야지요. 그 분들이 기억하는 삶 자체가 뭐 옛날 이야기지~ 나는 역사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무근성이 관아가 있는 성이었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다고, 목관아지를 중심으로는 부촌인데 병문천 주위 냇가에는 천민들이 살았어요. 한국 전쟁 때는 피난민촌도 형성됐었고 60~70년대에는 일제시대 적산가옥부터 초가집, 양철지붕집, 슬라브집

무근성의 역사적 가치를 지켜야

원도심을 사랑하는 마을사람, 무근성마을회 고정언 부회장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무근성의 이야기를 무근성 마을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듣고 싶어 무근성마을회 고정언 부회장을 찾았다.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었어요. 포제단 말고도 여단이라고 제 명에 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다에 나갔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단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곳이에요. 보존할 건 보존하면서 요즘 시대에 필요한 생활 편의적인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되요.

먼저 삶을 살았던 어르신들이 우려하는 바도 들어봐야 되는거고... 재생사업도 결국 사람들을 재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무근성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공간적, 심적인 부분의 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공간적인 것은 마을에 OPEN SPACE가 필요하다는 거지. 광장이나 공원, 텃밭처럼. 내 생각에는 지금 복개되어 있는 병문천을 원상복구해서 친수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싶어요. 또 교통 환경도 중요하죠. 요즘 차 없는 거리를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없으면 걸어 다녀야 하거든. 걸어 다니는 데는 넓은 도로가 필요 없어요. 도로가 좁고 아늑해도 되니까 지금 무근성 길도 보존할 수 있고 주민들이 걸어 다녀야 서로 대면하고 거기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문화도 볼 수 있고, 결국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심적인 부분이에요. 바쁜 생활 탓에 사람들 간에 감정교류가 부족하잖아요. 사는 곳에 OPEN SPACE가 있으면 시야도 탁 트이고 심적으로 안정이 되요.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꼭 기억하고 지켜냈으면 하는 무근성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근성 마을은 제주 최초의 마을이고 가장 오래된 마을이에요. 탐라 천년 질곡의 역사의 중심지이다! 무근성의 이 역사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노인이잖아. 이들이 떠나버리면 무근성의 역사적 가치가 잊혀져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마을사업이나 원도심 재생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해요.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무근성은 제주의 역사와 함께 있던 곳이기 때문에 무근성 마을의 역사·문화적 유물이나 자료를 모아서 좀 고스란히 담아놓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것, 그래서 무근성 마을에 사는 사람들, 제주도민들, 관광객들이 무근성 역사를 한번 탐방하고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 공간이 부족해서 심심해요”

건입동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본 원도심

제주에서 태어나 10년 내외를 살아온 우리 아이들은 원도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원도심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건입동에 위치한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6명의 어린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태어난 곳

지금 우리 동네 (16명)
... 아이들은 원도심이란 단어를 잘 몰랐다.

기타 (10명)
... 신제주, 서귀포, 서울 등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아기 때 지금 동네로 이사왔다고 대답했다.



우리 동네 자랑거리

디스코팡팡(트램플린) 있어요.

이마트가 가까워요.
엄마가 좋아해요.

동문시장이 가까워요.
심심할 때 놀러 가면 재밌어요.

학교가 가까워요. 금방 갈 수 있어요.



내가 꿈꾸는 우리 동네

마음껏 신나게 뛰어놀고 싶어요.

내가 태어난 동문로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우리 동네 불편한 점

길에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많아요.
자꾸 짓고 아무데나 똥 싸서 싫어요.

집이 2층인데 뛰어놀 수가 없어요.
1층에 시끄럽다고 엄마한테 혼나요.

동문시장에는 오일장처럼 동물을 볼 수가 없어요.

애견샵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신제주까지 가야되요.

집 근처에는 놀이터가 없어요.
학교 놀이터는 좁아요.
놀이동산도 없어요.
점심시간이나 학교 끝나고 놀데가 없어요.

공사를 많이 해서 시끄러워요.

골목에 가로등이 자꾸 꺼져있어요.
어둡고 무서워요.

길에 술 주정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싫어요. 무서워요.

아이들 대부분은 우리 동네가 놀 공간이 부족해서 심심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중학생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내가 태어난 동문로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수줍게 말하는 남자아이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지낼 수 있는 원도심이 되길 바란다.

무근성 in S.N.S

← → ↺ [https:// 네이버블로거 라온혜음](https://네이버블로거 라온혜음)

무근성벽화마을

내가 가본 벽화 마을 중에
제일 깨끗하고 그림이 이쁘고
평지에 있는 벽화마을이었음.
제주의 생활상을 나타낸 그림들로
동화책을 보고 있는 듯
이쁜 그림들이 가득함!



태그 > # 제주 # 무근성 # 벽화마을

← → ↺ [https:// 네이버블로거 kingbbo0420](https://네이버블로거 kingbbo0420)

무근성

제주풍경...무근성...



태그 > # 제주 # 무근성

평범한 일상이 담긴 문화놀이터

문화예술의 거리,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원도심 문화예술의 거리 가운데 골목을 우뚝 지키고 서있는
모이세해장국 2층에는 재미있는 갤러리가 하나 있다.
건물 외관과는 다르게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의
따뜻한 글과 그림들,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도 보인다.
마치 어린이도서관 같다.



그림책갤러리 제라진은 2014년 9월,
원도심에 문을 열었다. 그림책을 사랑
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그림책미술관
시민모임’은 제주에 그림책 미술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림책으로 뭔가 재미
난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8년
동안 비어 있던 단란주점 점포, 그 폐
허의 공간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놀이터로 탈바꿈 시켰다.

왜 그림책일까?

“그림책의 글과 그림은 모두 함축적이
고 아름다워요. 전시회를 보거나 소설
책을 읽는 것은 날마다 하기 힘들지만
그림책은 손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림책은 가까이에 두고 항상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매체인거죠.” 신수진 사
업팀장의 말이다.
그림책갤러리 제라진은 자극적인 영상

매체가 그림책을 대신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물론이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동심과 여
유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이 곳 갤러리의 작품들은 전문 미술인
의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솜씨
다.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회원 중
에는 작가, 화가, 전공자도 있지만 대부
분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시민
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전시
하고 그림책 읽기 모임, 창작 교육 프
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그림책을 직접
만들기도 한다.
현재 전시중인 ‘탐라의 탐나는 그림책’
작품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 올해
3월부터 모여 그림책 강연, 창작 워크
숍 과정을 거쳐 정성껏 만든 창작 그
림책이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 어릴 적 추억, 제
주의 자연 등을 소재로 만든 그림책들
은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 속 풍경과

4.3사건 당시 다랑쉬굴에서 일어났던
비극, 1970년대 초반 제주 시골마을
의 가을운동회 풍경 등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제주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번 전시는 2017년 1월 26일까지 진
행한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회원들이 돌아가며
갤러리 지킴이를 하는 중이라 매주 일
요일, 월요일은 휴관이다. 또 그림책
읽기 모임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10시~12시, 남녀
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예약 없이
가도 된다.
그 누구로부터도 거액의 돈이나 거대
한 힘을 빌리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인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
한 그림책을 만나, 더 즐겁고 따뜻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겠다는 그들의 꿈은 아마도 이루어진
것 같다.

유형문화재 향사당의 변신은 ‘무죄!’

원도심의 삼도2동 주민센터 맞은편에는 오래된 전통 한옥 한 채가 있다. 원도심 길을 걷거나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나면서 늘 닫혀있는 문과 돌담 너머로 여긴 원가하며 목을 쑥 뽑고는 기웃거리기 일쑤다. 그도 그럴 것이 건물에 대한 설명을 건물 밖에서 볼 수 없다.



향사당은 원도심 중심에 위치해 있는 유형문화재 제6호로 조선시대의 정자다. 고을의 어른들이 봄과 가을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활쏘기와 잔치를 베풀며 고을의 당면 과제를 의논하거나 민심의 동향을 살피던 곳이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아름다고 목들과 낙엽이 소복히 자리잡은 향사

당 풍경은 고즈넉하니 여유롭다. 오래된 건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놔두면 더 쉽게 무너지고 쇠락한다. 이상한 일이다. 향사당도 예외는 아니다. 늘상 잠겨 있다가 어쩌다 행사 때면 열리다 보니 사람들이 생활했던 건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건물이 최근에 다시 열렸다.

그 동안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관리해 왔으나, 지난 7월부터 원도심 활성화 및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권한을 이양 받아 일반인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크지도 넓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채 달랑 구옥 한 채만이 놓여있는 게 다인 향사당.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잊혀가던 곳. 문화재는 현대적으로 되살려 주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야



01 02
풍경이 있는 음악회
(제주빌레앙상블)

03
신성학원 동문회
산티아고 원정대 발대식

04
웨딩스냅촬영

05
미켈란젤로가 향사당에 왔다!
(조반니 만조니 뽀이자롱가 展)

그 결과 웨딩 스냅촬영, 제주빌레앙상블의 전통국악 공연, 제주작가회의의 시낭송·시화전, 2016 제주프린지페스티벌의 북콘서트·시어터, 신성학원동문회 산티아고 원정대 발대식, 조반니 만조니 뽀이자롱가의 개인전 등 여러 행사가 향사당에서 진행되었다. 고풍스러운 옛 건물에서의 행사는 낯설면서도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다.

할 것들이다. 향사당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휴식공간으로 찾아들어야 제 역할을 다 하는 건물이고 원래의 건축 의도이기도 하다. 혹시 지나다 문이 열렸거든 주저 말고 꼭 들어가서 마루에 앉아 쉬었다 가시라. 제주 도심에서 이런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관덕정에서 바라 본 우리 일상의 기록

제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 관덕정. 원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관덕정은 국가지정 보물 제322호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제주사람들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길을 가르쳐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익숙한 건물이다. 그 관덕정 앞의 풍경을 사심 없이 기록해본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잔잔한 기록이다.



- ☼ 할머니 한분이 지나가다가 멈추더니 빗물에 젖은 화단 풀잎에 손을 깨끗이 닦고 가심.
- ☼ 함께 놀봄병원으로 들어가는 노부부
- ☼ 이 근처에 사무실을 둔 듯한 남성 2명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 나누며 지나감.
- ☼ 깃발을 든 중국인 관광객 8명이 꾸벅꾸벅거리며 제주목 관아로 들어감.

- ☼ 하얀 트럭이 관덕정 앞에 서더니 밝은 표정의 젊은 여성 택배기사가 내림.
- ☼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앞에 있던 젊은 남성 2명은 택시를 타고 감.
- ☼ 엄마 품에 꼭 안겨 노래 부르는 아기가 지나감.
- ☼ 제주목 관아에서 젊은 여성 관광객 2명이 나오. 계속 대화를 나누며 걸어감.

- ☼ 빗방울이 갑자기 굵어짐.
- ☼ 신호등 앞으로 한 무리의 자전거 라이더가 보임. 동호회인 듯 형광색 점퍼를 맞춰 입은 중년남녀 8명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 나누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음.

11.10.
비오는 제주

12:00



- ☼ 정오를 알리는 중앙 성당의 종소리가 들림.
- ☼ 관덕정 맞은편 구두수선 가게에는 아주머니 손님 한분이 계심.
- ☼ 제주목 관아의 관문인 진해루 앞에는 양복 입은 중년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서성이다 차마 밀으며 가서 비를 피하는 중. 서로 한참을 이야기 나누더니 횡단보도를 건너 구두수선 가게 앞을 서성임. 구두수선 가게에 계시던 아주머니 손님이 나와서 그 분들에게 길을 안내함. 제주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말하며 밝은 표정으로 지나감.

12:12

12:21



- ☼ 형형색색의 화려한 아웃도어룩을 맞춰 입은 중년여성 5명이 짙은 옷으로 지나감.
- ☼ 카메라를 든 젊은 남성 2명. 연신 관덕정을 향해 사진을 찍음.
- ☼ 10분 전쯤 제주목 관아로 들어갔던 중국인 관광객 8명이 관람을 마치고 나오. 무관심한 표정으로 비 오는 하늘을 한번 보고는 길길로 떠남.

12:34

12:45

- ☼ 아까부터 종종 눈에 띄던 빨간색 점퍼를 입은 청년이 매표소 근처를 왔다 갔다하다 관덕정과 제주우체국 사이에 있는 공중전화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

12:59

11.17.
화창한 제주

12:30



- ☼ 동네 주민인 듯 운동복을 입은 중년 여성 1명이 썬캡을 쓰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감.

12:42

12:54



- ☼ 작업복을 입고 카메라 장비를 챙겨 든 중년 남성 3명이 제주목 관아에서 나오.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더니 관덕정 난간에 기대어 서로 이야기를 나눔.
- ☼ 아웃도어룩을 입고 배낭을 멘 중년 여성 1명이 고개를 꼭 숙이고 관덕정 앞을 지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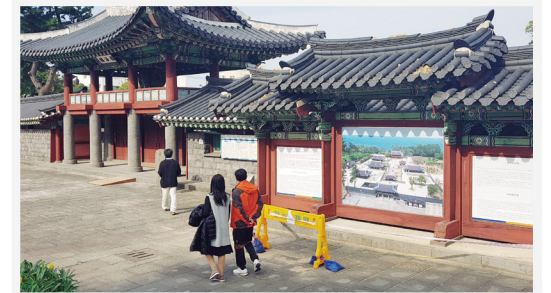
13:06

13:13



- ☼ 관덕정 옆 리어카에서 양말과 내의를 팔고 있는 할머니와 동네 주민인 듯한 할머니 1명이 관덕정 앞 인도 화단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심.

13:29



- ☼ 배낭을 멘 젊은 여성 2명이 제주목 관아 앞 안내판을 한참 보더니 안으로 들어감.
- ☼ 정장차림의 중년 남성 1명이 바쁜 듯 빠른 걸음으로 제주목 관아로 들어감.
- ☼ 부녀사이로 보이는 젊은 여성 1명과 중년 남성 1명이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관덕정을 돌며 이야기를 나눔.



- ☼ 중년남성 가이드 1명이 중년부부로 보이는 일본관광객에게 관덕정을 안내함. 여성관광객은 밝은 얼굴로 관덕정 사진을 찍고 제주목 관아로 들어감.
- ☼ 엄마와 아들로 보이는 중년여성 1명과 남학생 1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감.



- ☼ 1시간 전쯤 제주목 관아로 들어갔던 배낭 멘 젊은 여성 2명이 광장으로 나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가고 그 옆에는 중년남성 1명이 찌푸린 표정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서서 담배 피.

제주도시재생사업 컨트롤타워 ‘도지재생지원센터’ 문 열어 9월 22일 오전 개소식… ‘원도심 지속가능 개발’ 방향 천명



원도심 활성화 등 제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해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이승택)가 지난 9월 22일 센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 제주대병원 옆의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한 사무실(제주시 중앙로 14길

15-6)을 사용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 원도심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또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선화 의원, 홍경희의원 등도 참석,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승택 센터장은 원도심 재생사업이 천년 제주시의 역사문화적 자원이 가장 풍부한 원도심에서 추진되는 배경과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재생사업임을 밝혔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3년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 내에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심은 어떻게 되살아 나는가? 세계 중소형 도시의 도시재생 사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0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시 원도심 내 간세라운지 및 원도심 일대에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세계 중소형 도시의 도시재생 사례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유럽 문화수도 포르토와 대만의 타이베이, 스페인의 산세바스찬 같은 도시들이 공

동화 되거나 황폐화 된 도시를 어떻게 되살렸는지를 살펴보고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 이후에는 원도심 지역을 답사하며 지역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면서 소통했다. 강연에 나선 김방희 소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SBS CNBC CEO 랭킹쇼 블루베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오키나와 도시재생·건축 세미나 개최

‘제주’와 ‘오키나와’가 처해있는 건축·도시적 과제 진단 및 방안논의

제주와 오키나와의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저변확대를 꾀하는 도시재생·건축 세미나가 열렸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 일본 류큐대학교 건축학전공과 함께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시 원도심 생느행 홀에서 현재 제주와 오키나와

가 처해있는 건축·도시적 과제들을 진단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도시재생·건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2개 주제와 일본 오키나와의 사례 1개 주제 등 총 3개 주제의 발표가 이뤄졌다.



마을 만들기의 주역은 당신입니다 주민참여형태의 마을 만들기 방법 세미나 개최



지난 11월 9일 제주시 김만덕 기념관에서 커뮤니티 디자이너로서 저명한 야마자키 료 교수(도호쿠 예술공과대

학 교수·주식회사 studio-L 대표)를 초청해 일본의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원도심 내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야마자키 료 교수는 “지역 만들기의 주역은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 서로가 정을 나누고 지역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 나갈 때 마을은 비로소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민이 활발하게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마을이 재해에도 강하다는 것이 지난 몇 해 동안의 대재해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며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의 역할을 설명했다. 야마자키 료 교수의 마을 만들기 활동은 일본 TV 인기 프로그램에서 방영되고, 그의 저서 ‘커뮤니티 디자인’은 현지에서 10쇄를 찍을 만큼 일본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켈란젤로의 재림’을 문화재에서 만나다 원도심 향사당서… 이탈리아 죠반니 만조니 빼아짜롱가展

‘미켈란젤로의 재림’이라는 수식이 붙으며 관심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회화 작가 죠반니 만조니 빼아짜롱가(Giovanni Manzoni Piazzalunga)와의 만남과 개인전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 원도심 내 향사당에서 열렸다. 죠반니 만조니 빼아짜롱가展 - ‘미켈란젤로가 향사당에 왔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작가와의 만남 및 전시회는 도심내 문화재를 주민과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이탈리아 전시기획 전문회사인 오렌지 브릿지(Orange Bridge)가 공동 주최 및 주관으로 오픈닝 및 작가와의 대화는 지난 11월 10일 오후 7시에 향사당에서 열렸다. 작가 죠반니 만조니 빼아짜롱가와와의 만남은 ‘옛 것을 살려 미래 일군다’라는 모토로 제주의 젊은 세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국적인 풍광을 선사하고 기성세대에게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작가 죠반니 만조니 빼아짜롱가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미켈란젤로의 재림”이라는 수식이 붙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종 아트페어 및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다.

청년창업과 도시재생을 어떻게 풀것인가 김세용 교수… 고려대 캠퍼스타운 추진 과정과 방향 공유



청년창업과 도시재생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지난 10월 21일 제주시 원도심내 간세라운지에서 마련됐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창업 사업 연계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김세용교수가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의 새 실험인 캠퍼스타운의 추진 과정·방향을 공유하며 제주 원도심 도시재생에 벤치마킹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응답하라 제주도민!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시재생! 제주도 「도시재생 도민기획단」 모집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제주의 오래된 가치를 발굴해 현안 및 미래상을 제시할 도시재생 도민기획단을 모집운영 중이다.



지난 10월 25일 모집을 마감한 도민기획단은 모집결과 제주시 21명, 서귀포시 12명 등 33명이 응모해 연말까지 총 6번의 기획회의를 갖고 도시재생 전략을 논의 중이다. 도시재생 도민

기획단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발굴과 이슈도출에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 기획회의를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견은 향후 수립될 제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시 반영된다. 도민기획단으로 선발된 위원들은 10월 28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황 논의와 주요가치를 발굴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도출된 의견들은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의견 전달식도 가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센터 소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도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민 중심의 상향식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2016년 9월 22일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주민과 전문가,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의견 조정, 주민·상인 등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 소개

- 제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교육·소통사업 : 주민협의체,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포럼·강연 운영 등
- 역사·문화사업 : 원도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도심 율레길 조성사업, 문화단체 소그룹 활성화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 정주재생사업 : 정주재생 프로그램 기획, 지역경제 상권 분석, 공간공유 프로그램, 공공디자인, 디자인 자문 등
- 원도심 재생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 센터 연혁

2016. 12. 도시재생 한마당 참여
2016. 11~12.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2016. 10~12. 도민기획단 공모·운영
2016. 0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2016. 07.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향사당’ 사용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으로 선정
제주도와 위·수탁 협약서 체결
2016. 0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단체 등록
국토교통부 총괄코디네이터 이승택 센터장 위촉

● 조직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5-6
문의 064)727-0617 / fax : 064)727-0618
e-mail center@jeuregen.org
홈페이지 www.jeuregen.org